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이육재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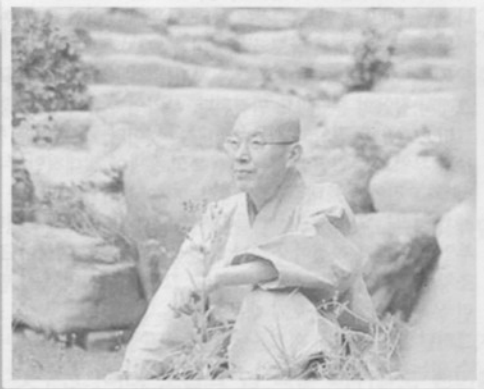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열여섯번째>

지안(志安)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불교의 대의
- 일시 : 불기 2548(2004)년 6월 19일(토) 오후 3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지안(志安)스님 약력

- ▶ 1947년 경남 하동 생
- ▶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 1988년 마산포교당 주지
- ▶ 1990년 마산 · 창원 불교연합회장
- ▶ 1992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 1997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 ▶ 2002년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현재)



6월 사찰환경 답사 강원 고성 건봉사, 양양 휴휴암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6월 20일(일)
- 출발지 : 20일(일) 오전 7시 경기불교문화원 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여행자보험/간식/사찰입장료 포함)

6월 초

불기2548년(서기2004년) 6월 (통권제10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수미산

조왕신과 여성

보현진열/ 감로향사 분향주

-이제 여성이 부뚜막 어르신을 대신해서 권력을 누리다-

먹는 일(食事)은 예나 지금이나 생업과 가족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야 끼니거리를 마련할 수 있기에, 우리의 활동하고 땀흘리는 노동 거리가 곧 '음식·밥'을 마련하려는 치열한 투쟁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생존이란 먹음에 의해 지탱되고, 입(口)에 들어갈 음식을 구하려는 우리의 노력이란 고상하게 말해 경제 활동이라 하겠다. 경제의 핵심은 '돈을 버는 일'이다. 돈이 있어야 우선 끼니 문제부터 해결된다. 돈을 쓰는 첫째 요처(要處)가 밥 먹기라면, 그 밥이나 먹거리를 관장하고 먹도록 요리해 만드는 공간과 주체는 인간사에서 필수적이지, 그것이 부엌이며 오늘날의 주방이다.

집(house)은 가정(home)을 이루는 기초 공간 구조인데, 거기에는 안방과 부엌(또는 주방)과 대문이 주요 골격을 이룬다. 이것을 양택의 3대 요소라 해서 중요하게 다룬다. 주로 북반구에 있는 우리는 겨울엔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오고 추우니까 거의 큰 산을 등지고 자리해서 앉아 흰히 트이고 넓은 들과 물이 흐르는 곳을 골랐다(=背山臨水). 그러면 남쪽을 향해 앉으며, 이때 대문은 길 따라서 달라지나 대부분 서쪽으로 나거나 동쪽으로 나게 된다. 옛 전통 가옥에서 길 따라 문이 나면 그곳을 통해 바람이나 사람도 짐승도 드나들기에, 그 맞은 쪽에 부엌을 두게 된다. 집 중앙에서 보아, 대문이 동쪽이라면 부엌은 서쪽에 두게 되니, 따라서 부엌이 안정되고 안온하며 음식 만드는 작업에 훨씬 적합한 환경 조건이 된다.

부엌에는 큰방 구들에 연결된 밥솥의 부뚜막이 있고, 좌우 한쪽에는 찬찬대(가마)가 놓이고 한쪽에는 아늑한 공간이 있고, 뒤로는 땀나뭇들이 놓이며, 뒤 바깥에는 장독대와 샘물이 있게 구조돼 있다. 이 넓은 공간이 부엌에서 작업하는 음식 만드는 일에 필요한 환경 구조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에 물, 불, 쌀, 음식물, 그릇...등인데, 이 모든 것들의 집중된 곳이 바로 부뚜막의 솥이다. 솥에는 쌀과 물이 들어 있고 밑에서 불을 지핀다. 쌀을 밥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 물은 필수적인 조화 여건이다. 물불이 없이는 쌀을 밥으로 만들 수 없다. 물불의 아름다운 조화로 좋은 밥이 되고 안방도 따뜻해지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다.

불을 때 솥에 밥을 짓고 안방을 지피는 것은 부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의 주체는 여자다. 어머니-며느리로 이어지는 여성의 전용 공간으로서 부엌은, 그래서 집안의 흥망과도 연결된다. 부엌의 부유가 곧 가정의 부유요, 부엌의 빈천이 바로 가문의 빈천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엌의 주체인 여성의 힘과 능력 그리고 운명은 집안의 재물운과 같은 것이다. 즉 여성은 풍요로운 재물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복 있는 아내나 며느리는 가문의 융성이기도 하다. 가문에서 보면 부엌의 주인인 여성은 재물복의 흥망에 절대적인 주체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여성의 재물복은, 그 여성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다는 그 여성을 그 집안에 보내준 저 운명적 존재에게서 찾았다. 즉 복 있는 여성이 그 집안에 들어온 것은 그 여성을 그렇게 집지해 준 조왕신(=부뚜막신)의 위신력(威神力)이라는 것이라고 선인들은 믿었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 여성은 조왕신의 고유 업무를 현실에서 조왕신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것이 된다.

부엌의 주체가 여성이라 하나 조왕신에서 보면, 여성이 조왕신의 대리자이므로, 곧 여성은 조왕신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관장하고 지키는 지킴이가 된다. 즉 조왕신의 지킴이가 여성인 셈이다. 그래서 여성의 음식 만드는 작업은 아주 신성스런 행위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은 물론이요 빈부귀천도 그 여성의 정성스런 음식 작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훌륭한 여성을 집지해준 조왕신의 현실적인 몸은 어떤가? 그것이 위에서 말한 부뚜막의 일체다. 그릇 솥을 걸친 구조 일체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이지만, 이 몸의 추상적인 구상화와 그 주체를 따로 그림이나 조각 또는 등상으로 만들어 바로 위 벽에다 안치해 놓았으니, 이를 우리는 조왕신단이라 부른다. 주로 조왕신 탕화로 많이 안치돼 있으며, 조석으로 밥을 지을 때에는 현관 예배하는 것이 상례였다. 아주 옛적에는 민간에도 널리 신앙됐었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민간에서 재물신으로 신앙되고 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절간에서 지켜 내려오다가 근래에는 절간에서마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물 짓고 불 때며 밥 짓는 형식이 이제 달라져서 그러했겠지만, 계명(啓明)의 여파인지 간사한 건지, 신앙 형태도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부엌의 행위에서 나오는 재물운은 곧 공간에서 증험된다. 공간은 부뚜막에서 불을 지피는 아랫목에서 저 멀리 윗목의 너머에 있는 공간에 위치한다. 거기엔 쌀과 보리 및 갖은 곡류가 들어 있다. 이 공간의 쌀가마니들은 그 집안의 빈부와 직결된다. 보통 공간의 열쇠는 시어머니가 차고, 부엌의 일은 며느리가 주관했다. 말하자면 여성은 고래로 집안의 재물복과 흥망의 주체였다. 이 땅의 여성들이여!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라! 그대들은 거룩한 조왕신의 임무를 대리로 처리하는 '신성한 지킴이'며, 가정의 행복과 재물을 좌우한다는 것을!...^^

문명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파트와 같이, 아무리 부엌의 공간 배치와 구조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역할은 가정의 행복과 흥망에 절대적이라 하겠다. 재물복이 여성에게 달려 있다면, 그 여성이 작업하는 (아파트의) 주방은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공간 배치와 환경 구조를 살펴야 한다. 우선 대문(또는 현관)에서 주방 안이 바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안방도 같지만, 특히 주방 안의 이것저것이 곧바로 보여지면 재물이 산실(散失)되고 만다. 재물이 흩어지면 공간이 비어간다는 의미다. 만약 그런 집이라면 칸막이를 예쁘게 해서라도 바로 보여지는 공간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실제 인테리어 풍수도 성행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의 공간 배치를 소홀히 해서는 그 만큼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전해지고 있는 (조왕경)을 보면, 매우 양성하고 빈약한 내용으로 돼 있으나, 모든 위작경(偽作經)이 그러하듯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민생의 고충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 중국에서는 민가에서나 절간에서 조왕신을 매우 성대하게 신앙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에 풀칠하는 것이야말로 생물의 절대적인 생존을 위한 명제이기에, 그 땀거리를 만드는 부엌과 여성은 생존의 토대요 바탕인지도 모른다. 옛적일수록 굶어 죽는 경우도 많았으리라. 지금도 빈민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명씩 먹을 게 없어 죽어간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끼니를 구해 만들어 입에 넣는다는 과정의 작업은 전적으로 조왕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민생의 절박한 심정적 요구가 조왕신에 의해 승화되고 안위됐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 척박한 민생 문제를 극복해 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으리라 본다. 그래서 조왕신은 그 집안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절대적 존재요 희망의 의지처였을 것이다.

이런 민생의 한계 상황에서 창출돼 신앙된 조왕신은 우리 민족의 저변에 깊이 자리 잡혀 있다가, 이제 서구화와 배부른 시대에 이르자 잊혀지는 '몰려난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이 우리 문화 의식 안에 있다가 몰려나면 좋은 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부뚜막의 거룩한 신으로서 숭상받던 시대는 벌써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이제 툭툭한 지킴이가 대신해서 부뚜막의 일을 척척해 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파위가 매우 신장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왕신단을 예전처럼 안 모셔도 충분히 여성이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니 안심이다. 아마도 조왕신께서 능력 있는 지킴이를 온전히 믿고 떠나 가셨으리라고 안위해 본다.

우리 나라 고전적 의례 법요집인(석문의법)(1931)에는, 조왕단에 예경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새벽 예불 때에 반드시 예경하는 화엄신중 가운데 음식 담당 신 중이다. 좌보처에 담시력사(擔柴力士), 우보처에 조식취모(造食炊母)를 모시고 있다. 담시력사는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화엄신중 104 위(位) 가운데 유력한 한 호법신장이고, 조식취모는 공양을 만드는 공양주다.

경계
불교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5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6월 30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다도반

개강일 : 6월 29일 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사 : 윤 영 예

기간 : 5개월(100,000원)

봉정암을 다녀와서

김 숙 희/ 본원사찰답사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의 사찰환경답사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양을 주었다. 사찰 주변에 있는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 등, 이 모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고, 모든 게 다 뜻이 담겨져 있다 생각 하니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인지 모르겠다.

이번 답사 또한 너무나 소중했고 감사했다.

우선은 꼭 가보고 싶었던 봉정암을 다녀왔으니 기쁨으로 말하면 열배는 더 한 것 같았다.

1박3일이란 힘든 여행이었지만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돌아와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했다.

백담사에서 새벽 예불을 마치면서 시작된 사찰 순례, 모두가 다 부처되어 수행의 길로~ing 영시암을 둘러보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오세암에 도착 했을 때 그 기쁨 어찌 말로 다.....,

이름만 들어보아도 가슴 설레게 하는 오세암, 그 천진한 오세동자와 만남. 다람쥐도 합장하며 지나가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드러내고 있는 듯 한 저 숲의 아름다운 신록들 또한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곳 오세암

신라 선덕여왕 13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관음암 이었다고 했다

천진 관음보전에 모셔진 백의관세음보살님께 참배하고 나오니 어머니 품속에서 응석을 마음껏 부리고 나온 느낌을 그 누가 알겠는가. 콧노래를 부르며 한 봉우리, 또 한 봉우리를 넘다보니 어느새 깔딱고개가 나왔다. 두 손 두발을 이용해야만 오를 수 있는 바윗길인 것이다

문득 마계(魔界)에서 불계(佛界)에 든다는 '유마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마치 험악한 바윗길이 마(魔)의 구역 같은 것이다.

봉정암은 신라 선덕여왕13년 자장율사가 중국 청량산에서 구해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려고 금강산을 해매고 다니던 중 자장율사 머리위로 봉황새가 나타나 내설악산정으로 안내했다는 설화가 있다.

암자의 법당인 적멸보궁에는 일반법당과 달리 불상이 없다.

산정의 5층 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31호)에 불사리가 봉안되어있기 때문이다. 석가탑으로 불리는 5층 석탑으로 먼저 가서 참배를 한다. 그리고 보니 참배하는 이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산봉우리에 솟구친 여러 모습의 입 다문 바위들도 천년을 하루같이 탑을 향해 참예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 하여 부부바위, 곰 바위, 부채바위 등등이 보는 이의業에 따라서 형상을 달리하며 장엄하게 이쪽을 굽어보고 있음이다

암자 주위에 사는 까마귀들에게 눈이 쌓여 먹이가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아침끼니마다 밥을 주어왔는데 이제는 까마귀들이 밥값을 한다는 것이다. 등산객들이 오면 한두 번 울고 말지만, 반가운 스님이나 신도들이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깹깹 짖어댄다는 주지스님의 말씀이시다. 까마귀한테서도 불성이 느껴진다.

그렇다 은혜를 갚는 심성만으로 파진다면 한낱 날짐승인 봉정암의 까마귀가 어찌 인간보다 못할 것 인가하는 화두 아닌 화두를 가지면서 소청봉으로 향한다.

소청봉에 이어 대청봉에 서 보니 모든 사물이 다 발아래 있어 잠시나마 거만한 인간의 내면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해 다시 발길을 비선대로 옮겨 본다.

비선대로 내려오는 도중에 천불동계곡에서 천불부처님을 맞이했다. 업이 많은 중생인지라 천불부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 다리 아프다고 원망만 하면서 비선대로 내려오니 천불부처님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가.

신흥사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회향하면서 1박3일의 사찰순례를 마무리 하였다.

보잘것없는 우리부부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 문화원 원장님께 감사하며 또 불교에 입문토록 도와준 김영순 포교사님께도 거듭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해 본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경기도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진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 031-237-3339 Fax, 031-222-5228

경전강좌 (선가귀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사 : 도업스님
기간 : 4주과정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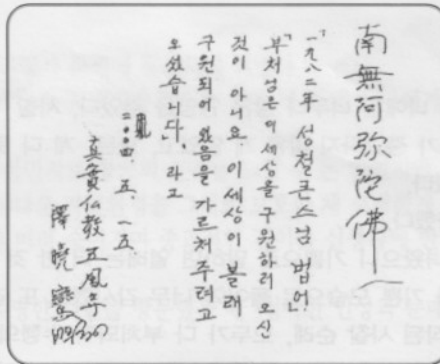
불교의식반 (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6월 28일 개강)
강사 : 권혁찬
기간 : 3개월 과정 (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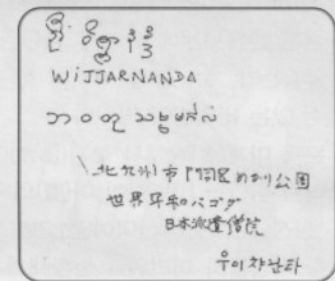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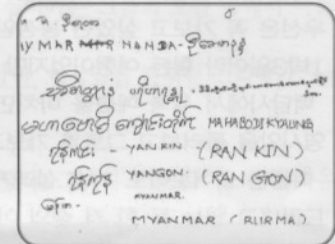


정토신앙에 대하여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왔으니
그 죄가 크기는 수미산을 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恨이 萬端이라
등근 해가 靑山(靑山)에 걸렸구나



효란(曉鸞)스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주려고 오셨습니다.
성철스님의 20년 전 초파일 法語중의 한 글귀입니다.
나는 이를 두고 평생의 화두로 삼아 왔으며 이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자 합니다.
다시 성철스님의 열반송을 들어 봅시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왔으니
그 죄가 크기는 수미산을 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恨이 萬端이라
등근 해가 靑山(靑山)에 걸렸구나

해석이 구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이해 돼왔지만 나는 마지막 구절을 달리 해석하여 肉身을 벗어났더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얼른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평소의 성철스님의 뜻이 열반송과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는 禪僧이라는 선입견으로 염불수행과는 관계가 없고 낮은 근기를 대상으로 한 수행법이라고 할지 모르나 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수한 부처님이 아미타불로 나오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은 이미 다 제도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므로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보이신 진리를 나무숲 속의 모든 잎과 손안에 쥔 잎을 비교 했듯이 우리는 어리석음에 뒤덮여 못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生과 死는 따로 떼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마을에 내려가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내 살려주겠다 라고 했듯이 진리 안에 들러오면 모든 일이 안되는 일도 없지만 또 되는 일도 없다는 이치를 바로 알아야합니다.
또 우리는 高僧들의 入寂에 대하여 상당한 신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연으로 생긴 이 육신은 한계가 있으므로 마지막 모습은 범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 능력이 무한할 뿐이나 당신만이 알 뿐 영접 나오시는 아미타부처님이 미혹한 우리 눈에 보일 리도 하늘음악이 들릴 리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字解로는 물이 간다고 했듯이 부처님은 내 몸 안에 모든 중생이 다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물이 무한하게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물을 필요로 하듯이 이 우주 만물 중에 불교의 진리가 아닌 것이 없으나 다만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중생에 비해 수송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람을 상대로 법을 설했기 때문입니다. 기어가는 벌레하나 작은 돌 바람소리 이 우주안의 모든 하나 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모습이며 가르칩니다. 경전을 범보경장과 승보경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중 무량수경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오신 사유를 밝혔다고도 합니다.
금강경을 범보경장의 대표적이라고 하고 승보경장은 화엄경이라고 하나 이렇게 무수하게 등장하는 갖가지 부처님은 원래는 한 분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중생의 모습이야말로 불보살의 전생모습이니 우리는 이미 모두 구제되어 있다는 신념으로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경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發心修行章 II

도업(道業) 스님/ 본원 경전강좌 강사



이 發心修行章은 어느 經·論에 대한 단순한 주석서나 연구서가 아닌, 독창적인 저술서라는 데 더욱 큰 뜻이 있어 오랜 세월 동안 발심한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바르고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는 지침서, 교과서로 널리 받아들여져 읽혀왔고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원효스님의 『發心修行章』을 읽지 않은 이가 없으며, 이 『發心修行章』의 정신을 받드는 이는 한국의 불자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불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발심수행장과 한국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글의 題名인 『發心修行章』은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는데 대한 글'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곧 '거룩한 불심을 일으켜서 불도를 수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나 이미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이에게 주는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일러주고 경계할 바를 제시해 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위가 반드시 생각한 뒤에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뜻있는 행동은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 생각한 뒤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중생의 길을 뛰어넘는 보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큰 발심과 굳센 마음의 다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총 7백자로 된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발심의 자세와 수행의 첫걸음을 아주 간절하게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발심과 수행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題名만으로도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의 본문도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심과 수행은 佛法에 있어 특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발심을 떠난 수행이나 수행을 등진 발심은 무의미하고 온전하지 못한 공부로서, 원효스님의 말씀처럼 '동쪽으로 가려 하지만 서쪽으로 가고 (欲往東方而向西行)…… 모래를 찌서 밥을 지음이라 (蒸沙作飯)'와 같다.

여기서 발심이라 함은 곧 생각을 일으키는 초보적인 발심에 그치는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발심한 바 내용이 무엇이고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등의 문제를 깊숙이 아는 넓은 의미의 발심까지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발심'을 단순히 '부처님과 친근하겠다' '신앙하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겠다' 또는 '출가해서 철저한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 '세속에서 5욕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남에게 참다운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 되겠다' 하는 등의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발심의 뜻을 좀더 심층적으로 해석할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佛教의 究竟의 목표와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곧 여기서의 발심은 구경적으로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또 이 보리심을 자세히 푸는 경우, 부처님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기까지 추구할 수 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없이 바르고 두루한 바른 깨달음'이라 할 수 있으며, 한자로는 '無上正等正覺' 또는 '無上正偏正智'로 번역하는데, 다시 이것을 줄여서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룬 마음), 無上道心(위 없는 도를 얻은 마음), 道心(도의 마음), 道意(진리의 참된 뜻), 覺意(깨달은 뜻)라고도 한다. 다시말하면 거룩한 마음을 일으켜 많은 수행을 닦아 쌓음으로 佛果를 기어이 이루겠다는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의 참 정의라 하겠다. 특히 보살은 이런 발심을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리심의 본체는 중생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청정심성(淸淨心性)이라고도 하여, 의식 할 때에 외우는 사홍서원도 그 내용으로 보면 발보리심의 발원이요, 서원이다.

발심에도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인생의 참된 진리와 뜻을 찾아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의 생활을 위한 크나 큰 발심을 해서, 애욕을 끊고 철저한 수행을 할 것이며, 덧 없는 세월 잠깐 사이에 백발이 찾아오는 법이니 잠깐도 방일하지 말라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간절한 교훈의 글이라 하겠다.

이 글은 대개 3가지 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대문은 수행은 먼저 애욕을 끊고 고행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둘째 대문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내용의 교훈이고, 셋째 대문에서는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 나는 화살과 같이 빠름을 여러 구절로 수식, 부지런히 발심수행하지 않으면 안됨을 경계하여 채찍질하는 내용으로 마감되고 있다.

이 글의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는 현재 고종 20년(1883)에 『계초심학인문』, 『자경문』과 함께 합본판이었다. 언해본은 순천 송광사의 합본판으로 光海主 4년(1612)壬子春판인데 현재는 해인사에 보존되어있다.

경계
불교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옛날 낙수리

<낙지한마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제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사랑방

스리랑카 그 추억의 순례



김혜은/ 본원 노래교실 강사

갑신년의 신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우연히 스리랑카 순례에 동참하게 되었다.

나에게 해외여행은 공부와 연주로 관련된 것이었기에 순수 성지순례만을 위한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감사한 마음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도이었다.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 영국의 식민지로 영국의 정취를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들만의 국민성과 여유로움, 현실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방대한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호한 채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밑바탕에 부처님법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때 새삼 종교의 힘에 머리 숙여지며 종교적인 깊이를 실생활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동굴사원 덤불라(Dambulla)를 거쳐 폐업정으로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을 때 청아한 인상과 눈매가 맑았던, 한국말을 하시던 스리랑카 『난다 스님』을 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공부하신다는 스님은 너무도 화사하고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시고 안내해 주셨다.

또한 Galle 해변의 독일여인 『엘가』 그녀는 65세인데 휴가를 즐기러 1달 동안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모습에서 노년의 여유로움과 인생을 홀로 당당하게 즐기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고 나도 언젠가 다시 Galle 해변을 여행하리라 다짐하면서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늘, 파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해변을 잊을 수가 없다.

아득한 고대의 향기 느낄 수 있는 차밭들과 불족산의 장대한 일출은 모든 세계의 장대함과 자연의 순수함과 위대성을 일깨워주는 장관이었다.

여인네들의 순수함과 애잔함 속에 우리들 인생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스리랑카여행 다시 그곳을 여행 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마음깊이 간직한다.

소중한 인연들 많이 만나게 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부처님 마음 갖으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며...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김혜은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 (금액 : 3,448,800원)

김태제	염규용	이선우	김향숙	현병국	주영월	이태순	양정례	이정배
진철희	김명옥	김영희	강영진	박청용	최정자	이태갑	심화식	박용필
최명길	박경아	이대곤	윤영무	이임성	장옥훈	송호윤	윤광숙	진상범
권승하	장용집	김순자	정무근	김말수	김영동	김정숙	이미화	진기홍
이화순	홍인숙	김의순	이상범	이옥자	한경숙	이병일	이명주	조권형
권중서	김미월	양준영	강재수	김준옥	이난호	조병희	박은숙	
이기원	이기순	조창윤	김기현	안영찬	박선현	배민한	윤기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접수 하신 분 가족등 (금액 : 4,280,000원)

윤영무	강윤희	진철희	이학태	엄태준	김용덕	한정자	강영진	김재봉	이창훈	영가등 (금액 : 200,000원)
류승진	이학운	최옥란	정인철	형정희	김신자	이청용	다정선악회	김영민	손일권	진두백 최경천 용영재
박형림	김준호	권승하	안영찬	김해림	배문호	박청용	홍두표	김종구	이형만	유금순 김춘섭 양만식
이중량	윤민숙	양성혁	황달수	백병학	조대식	전수호	신종근	김영진	이선우	최영구 (7개)
이정제	이강천	김혜은	김완기	김송래	임정순	하영수	장현식	김명옥	손원자	
조남형	함대식	최명길	박정일	김영순	진기홍	조복행	강보현심	김태제	주현순	
이성봉	차유영	김용익	최원웅	이기원	진주범	최정수	이병일	심명식	하태욱	
전태규	정경원	최영달	장주덕	윤창구	강석근	최우석	전종환	윤천수	청정심	
서금원	이기호	김선옥	박종삼	심건기	김용필	이문호	정영철	박광서	(116개)	
조권형	홍석준	서정탁	심명식	정재안	염규용	최명근	정천수	이혜숙		
김영돈	권오상	양재홍	엄대용	최홍엽	김영희	유매순	허순나	이수복		
지병호	최정순	김대성	엄미영	강용배	이종열	이금심	이경원	성태용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대표 안창호

세무사 전종환

TEL : 031)246-1177

FAX : 031)257-5533



사랑방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다섯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오봉사 회주 효란스님 초청(열다섯번째) 열린 법회가 지난 5월 15일 “정토신앙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여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성취하고자 연등불사를 봉행하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5월 적멸보궁순례

지난 5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봉정암을 비롯해 백담사, 신흥사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오는길에 설악산 천불동, 비선대를 거쳐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한껏 느끼고 왔습니다.



● 5월 사찰 환경답사

지난 5월 16일(일) 지리산자락에 위치한 쌍계사와 칠불암 그리고 쌍계사에서 운영하는 화개죽차밭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쌍계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쌍계와 석문을 지나며, 신선이 되고자했던 고운 최치원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고 칠불암의 아(亞)자 방을 보며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10km넘는 야생의 차밭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6월 행사 안내

●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7월 7일(수)~11일(일)(4박 5일)
- 순례지 : 중국 오대산
- 일 정 : 수원→인천국제공항→북경→만리장성→오대산→현공사→운강석굴→구룡벽→보제사→영교사→영응사→현통사→탑원사→수상사→태원→자금성→북경→인천국제공항→수원(호텔개설)
- 접수마감 : 6월 19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 금액 : 1인 79만원
- 문의 : 경기불교문화원 이육재 간사 031) 251-1083



● 여주교도소 및 일본 오카야마교도소 교류방문

본원 진철희원장은 6월9일~12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여주교도소와 일본 오카야마 교도소와의 상호 방문계획에 의한 것이며 방문 후 일본불교를 위해 교토, 나라, 고베, 오사카 등에 있는 일본 불교사찰에도 방문 합니다.

“백인에게 듣는다” “5월 사찰환경 답사” 안내는 1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강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6월 28일 개강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7월 2일 개강
	경전강좌	도업스님	30명	4주 30,000원	선가귀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6월 4일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월개강
문화강좌	발건강 관리법	안옥순	20명	3개월 100,000원	발건강 관리와 족압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7월 5일 개강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월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7월개강
	다도반	윤영예	20명	3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6월 29일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6월 30일 개강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6월 30일 개강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7월 2일 개강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수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수시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